■ 지방선거 핫코너

윤난실 "공수처·자치경찰제 도입해야"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2일 '검사 스폰서 의혹'과 관련해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사실상 해체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이하 공수처)와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예비후보는 이날 "공수처를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관'에서 기소권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수사권'을 검사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원섭 "스폰서 검사 의혹, 특검 도입을"

장원섭 민주노동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2일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만큼 특검을 도입해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이날 "기업체 관계자로부터 오랫동안 부적절한 향응과 성 접대까지 받은 검사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수사하고 기소한다면 그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검찰에 진상 규명을 맡길 것이 아니라 특검을 도입해 국민적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찬용 "정권교체 이룰 대안세력 키워야"

정찬용(무소속)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2일 "시민들의 힘으로 광주 민주당을 제외한 민주개혁 진보세력의 단일화를 성사시켜 광주에서부터 정권교체를 이룰 대안세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이날 "광주시장 후보경선을 둘러싼 민주당의 패자부활전이 음모론과 회유, 금전거래설이 난무하며 추악한 싸움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제는 광주 자존심을 지킬 대안세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광운 "주민 참여 정책간담회 개최"

송광운 민주당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21일 북구 재도약을 위한 구체적 구상을 위해 북구지역 관련 단체들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10대 공약의 대안과 실천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가다듬기 위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북구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을 통해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택 "외부 전문가로 시민감사위 설치"

임택 국민참여당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22일 "민선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시민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이날 "민선 자치단체장의 무소불위한 권력남용으로 인해 각종 건설 관련 인·허가권을 통한 이권개입과 뇌물수수, 매관매직, 인사 전횡 등 고질적 병폐가 지방자치를 좀먹고 있다"며 "이 같은 병폐를 없애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수 '군정 정상화' 등 홍보물 배부

김양수 민주당 장성군수 예비후보는 22일 '김양수의 두 가지 약속'이라는 제목의 선거 홍보물을 제작해 유권자들에게 배부했다. 김 후보는 홍보물을 통해 장성군정 이른 시일 내 정상화, 사람과 돈이 몰려드는 활기찬 지역 탈바꿈 등의 두 가지 약속을 했다. 세부 약속으로는 ▲투명한 공무원 인사 ▲의회 존중 ▲축령산 관광시설 확충 ▲경로당 반찬 값 지원 ▲상무아파트와 상무대간 자전거도로개설 등을 제시했다.

김만곤 "단독주택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김만곤 민주당 광주시의원(남구 제2선거구) 예비후보는 22일 "구 도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무상으로 전환하는 등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2.5%의 저금리로 지원되는 융자금을 상당부분 무상으로 전환하고, 시 예산을 대폭 확대해 가구당 지원한도액과 지원세대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길원 "신가지구 시내버스 증편 시급"

김길원 민주당 광주시의원(광산 제3선거구) 예비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개발지역인 신가지구에 시내버스를 증편, 신가지구 거주 3만3500여 세대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광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특히 신가지구 3만여 세대 중 학생 수가 전체인구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학생들이 통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시내버스 증편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남 '시의원 중간평가제' 등 공약 발표

김영남 민주당 광주시의원(서구 제3선거구) 예비후보는 22일 "자질과 능력으로 신뢰받는 시의원, 민주당의 일꾼으로 믿음직한 시의원이 될 것"이라며 핵심공약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 ▲자질과 능력있는 의회 구현 ▲민주당의 이념과 가치, 정책 실현 의회 등 5대 과제와 함께 ▲시민과의 대화 프로그램 운영 등의 18개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송태종 "북구 4선거구 시의원 출마"

송태종 전 광주시의원은 22일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북구 건설을 위해 오는 6·2지방선거에 북구 제4선거구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이날 "현재 발전의 정체를 보이고 있는 북구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으로 북구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북구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번 선거가 과거 정당의 이름을 걸고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집안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北 잠수함 중어뢰로 천안함 공격"

軍 정보기관, 침몰 직후 '북한군 소행' 보고서 전달

한미연합사, 北 게릴라전 징후 포착 서해 감시 강화

군 정보기관이 천안함 침몰사고 직후 북한군의 소행이 명확하다는 첩보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소식통은 22일 "군 정보기관에서 천안함의 침몰사고 직후 북한군의 소행임이 명백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전달했다"면서 "정보기관은 연합사가 수집한 대북첩보를 포함해 북한의 게릴라전 훈련 등을 근거로 북한 개입 여부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북한의 잠수함은 모두 탄두 200㎏의 중어뢰로 무장했다"면서 "북한 잠수함이 중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것이 군 정보기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군당국은 이와 관련, 북한이 작년부터 게릴라전 식으로 도발할 것이라는 징후를 포착하고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해왔으며 특히 한미연합사령부는 올해 초부터 전일 체제를 유지하며 북한동향 보고를 수시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소식통은 "북한이 작년 2월부터 국지전보다는 게릴라전 식으로 도발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훈련을 강화해 북한군의 동향을 정밀 감시해 왔다"면서 "김격식(대장) 4군단장 주관으로 서해에서 게릴라전 훈련을 강화한 징후가 대북 감시망에 여러 차례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북한군 총참모장을 지낸 김격식 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관할하는 4군단장에 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정보당국은 북한의 게릴라전 징후 첩보를 한미연합사에도 제공했으며, 연합사는 이 첩보를 토대로 올초부터 서해 NLL 수역에 대한 동향보고서를 12시간 단위로 작성해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김태영 국방장관도 지난 2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 답변에서 천안함이 백령도 근해로 항로를 변경한 것은 "최근 대청해전 이후 북한이 보복하겠다고 해서 공격방식을 바꿀 것으로 예상해 새로운 공격방식에 대응해 함정을 보호하기 위해 반대쪽으로 배치하는 것을 작전적으로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천안함이 지난달 26일 백령도 근해로 항로를 변경한 것도 북한의 위협징후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속초항 입항하는 北 선박 지난 14일 내려진 이산가족면회소 등 5개 부동산에 대한 동결조치에 이어 금강산 지구 내 민간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북한 군부의 시찰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22일 북한 화물선 한 척이 속초항에 입항하고 있다. 최근의 냉랭해진 남북관계와는 별개로 속초항을 통한 남북 간 교역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도요타 신용등급 1단계 하향

국제 신용 평가사인 무디스가 22일 일본 자동차 제조 업체인 도요타의 신용 등급을 1단계 낮춘 데 이어 피치도 등급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이날 대규모 리콜에 따른 "제품질"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도요타의 장기 채무 등급을 'Aa1'에서 'Aa2'로 1단계 낮췄다.

무디스 관계자는 도요타 자동차의 리콜 사태로 "도요타가 지금까지 경쟁사를 상대로 누려왔던 가격 결정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한 불확실성이 조성됐 다"고 말했다.

'Aa2' 단계는 무디스 등급 중 상위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무디스와 함께 3대 신용평가사에 속하는 피치 관계자도 이날 도요타의 신용 등급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면서, 도요타 등급에 대해 "향후 6개월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피치는 현재 도요타의 신용 등급을 상위 5번째에 해당하는 'A+'로 평가한 상태다. /연합뉴스

"서해 해병대 병력 감축 없던일로"

K-9 자주포 추가 배치 등 전력 증강

군당국은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개 도서의 전력을 증강하고 해병대의 상주 병력을 2020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22일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서해 5개 도서 지역의 취약점을 분석해 전반적인 보완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와 관련, 서해 5개 도서 지역의 전력증강 방안에 대한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백령도와 연평도에는 K-9 자주포를 추가해 고정 배치하고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등의 탐지를 위한 대포병레이더(AN/TPQ-36.37)의 배치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백령도와 연평도의 해병대 상주병력 수준을 2020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국방부는 현재 4000여명에 이르는 백령도와 연평도 주둔 해병대 병력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200명을 줄일 계획이었다. /연합뉴스